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김준일 : 사단법인 한국원적외선협회 회장

존경과 사랑으로 일관하여 온 당 협회 고문, 자문위원 그리고 임직원님들을 비롯한 회원사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협회 발전에 끊임없는 참여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18일 KINTEX에서 제13회 한·일 원적외선 심포지엄과 함께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결들인 바 있습니다만, 이제 당 협회가 사단법인화 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로 발족하기까지는 15년전!

당시 발기인의 한사람이었던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와 함께 만감이 교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 정성우 회장님, 김광배 직전 회장님 그리고 한정수, 라창호, 이남용 사장님들이 아직 임원으로 저와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희 곁을 떠나 고인이 된 분도 두 분이나 계시며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같이 하여온 이희안 전 감사님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겨울의 햇살이 고드름을 녹여 땅을 꿰뚫어 왔듯이 그런 각별한 저력을 갖고 발전시켜 왔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꽃에 비유하면 선인장처럼 피워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중에도 선인장은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을 이겨내고 피워낸 꽃이기에 그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이 떠오릅니다. 과거는 기억이며, 현재는 우리 의식의 주목이고, 미래는 기대함이라는 그의 확언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모름지기 협회는 협회 연륜만큼이나 아름다운 전통성의 계승과 함께 많은 업적도 쌓여 역사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체계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인 측정업무의 실현과 협회보 발간에 정착, 수많은 유관부서와의 업무협약 체결, 각종 매스컴 활용을 통한 대외홍보, 동아시아 음이온 협회 설립의 참여, 특히 일개 협회 자원에서 국제적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그리고 건강박람회 등을 주도하여 오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어 가게 마련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별들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찬란한 것처럼 오늘의 모든 출산이 있기까지는 산모와 산파역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성우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소금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사는 맛을 내고, 봄꽃처럼 자랑하지 않아도 고운 삶을 피워내며, 산나물처럼 꾸미지 않아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들!

결국 이웃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

즉, 봉사한다는 것은 큰 나눔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안주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변천과 기업환경에 따라 협회가 요청받거나 업무개선 등 추구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공동 관심사항의 몫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원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다소 극복하고 오직 대의명분을 위해 결집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라는 큰바탕 위에 합리성과 투명성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를 보십시오! 비록 날짐승이지만 늘 짝을 짓고 줄을 지어 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 불황과 경기 침체로 결코 우리의 산업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외환위기 등의 악재는 IMF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회원사들이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협회의 존재는 하등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과 발전의 원리가 새로워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적외선 산업 전반에 현안 문제를 돌출시키고 또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면서 이에 대한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동의 능력으로 개척해 모름지기 가치있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숲은 깊을수록 많은 새들이 모이고 새 소리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10주년의 연륜답게 깊은 숲을 만들어 우리 모두 심기일전 초심으로 돌아가 변화와 발전의 기폭제로 만듭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첨단산업에 믿음과 꿈이 있는 사회!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로 국가 건강산업에 기여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두 다함께 한걸음 다가섭시다. 그리하여 15주년 20주년 되는 먼 훗날 오늘을 매우 아름답고 자랑스런 역사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제고해 나갑시다.

끝으로 무덤고 끈적끈적한 여름철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힘내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돈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라는 평소의 소견도 부언합니다.



협회 창립10주년 기념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